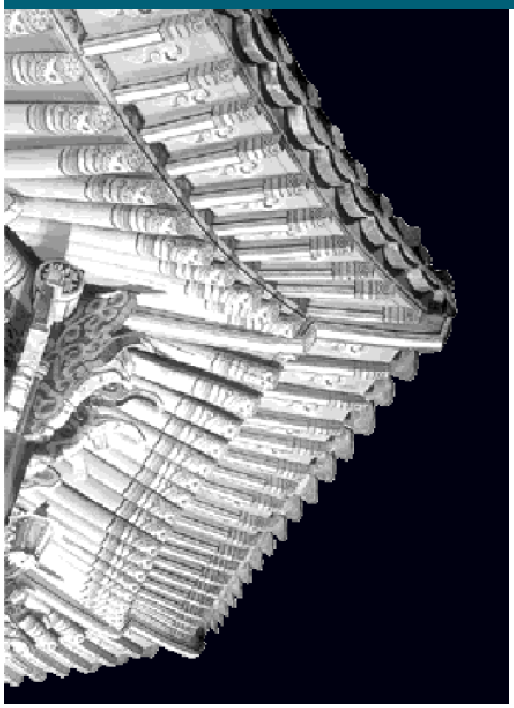


경복궁 종소리

장영실의 측우기

마음의 상처

“ 영실아. 영실이냐? 얼른 사또마님 방으로 건너가보아라. ”

새끼줄을 꼬고 있던 영실은 사또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. 손바닥에 통증이 느껴졌다. 새끼줄이 손에 박혀 상처가 난 것이다.

‘ 사또님이 왜 나를 찾으시지? 혹시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? ’ 영실은 조금 두려웠다. 아직까지 사또가 자신을 부른 일은 한번도 없었다. 영실은 노비들 가운데서도 제일 나이가 어렸고 서열이 낮았다.

“ 사또마님. 장영실 대령입니다요. ”

“ 들여보내거라. ”

이방에게 주의를 받은 후에 영실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.

영실은 이방이 가르쳐준 대로 문을 연 후 무릎을 꿇고 앉았다.

“ 그래, 네가 영실이냐? ”

“ 예, 소인이…… . ”

영실의 목소리는 목구멍을 타고 기어들었다.

“ 내가 너를 부른 까닭은.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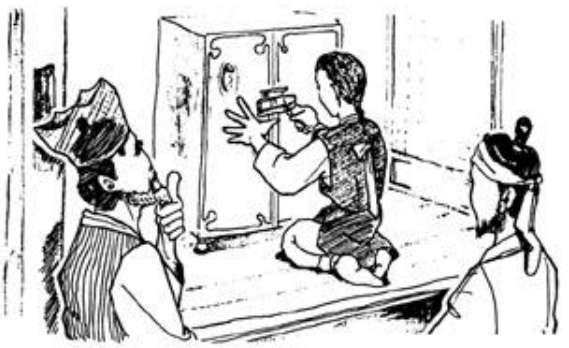
사또의 말을 듣던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다. 그것은 관아의 기밀 서류함의 자물쇠가 망가져 무리해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.

“ 할 수 있겠느냐? ”

“ 사또나리. 꼭 된다고 약조드릴 수는 없지만 해보겠습니다. ”

서류함 앞으로 간 영실이 자물쇠를 들여다보며 만지작거렸다. 모두가 영실을 눈여겨보았다.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이 마당에 내려앉았다.

“ 철컹. ”



순간둔탁한소리와함께자물쇠가굳게다물었던입을벌렸다.

"와아아!"

모두의탄성이쏟아져나왔다. 사또역시감탄한듯눈을반짝이며영실을쳐다보았다.

"수고했다. 내너에게상을내리마. 자넨이놈에게새옷한벌내주도록하게."

영실은곧유명인사가되었다. 하지만이자물쇠를해결한영실에게시련이닥친다. 서류함에든기밀문서가없어진것이었다.

모두가영실을의심했다. 두터운자물쇠를열수있는사람은영실뿐이었다.

"어서이실직고하렸다."

"나리, 소인은모릅니다."

"그래도. 저녀석을매우쳐라. 내어여삐보았더니."

"나리, 억울합니다."

영실은모진고초를겪었다. 문득어머니가떠올랐다.

"사또, 찾았습니다."

이방이호들갑을떨며흰종이뭉치를들고뛰어들어왔다.

"뭐라고?"

"저, 사또님방문갈빗에서."

사또의머리속에무언가빛이스쳤다. 어제저녁문서를확인한후머리맡에둔일이떠올랐다.

'그렇다면밤새…… ."

사또는자신의성급한판단으로일어진것이부끄러웠다.

"정말미안하구나."

일은그렇게수습이되었지만영실은마음에큰상처를입었다.

다음호에계속

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팀장
왕연중 記

발 • 특2005. 1